

‘스마트 배달통’의 차별성 및 핵심역량

1. 기존의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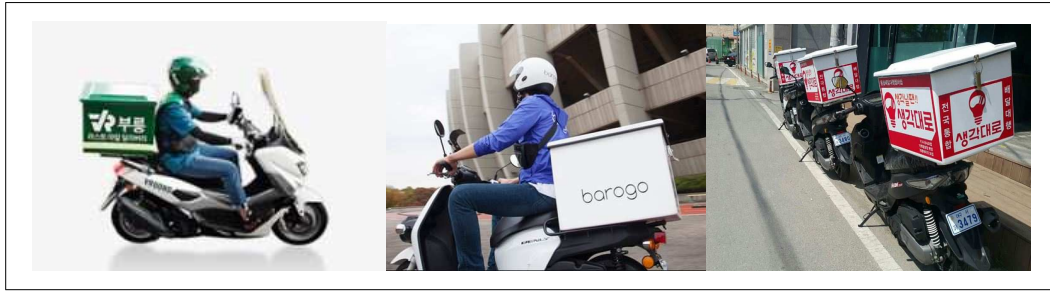
- 1) 기존의 배달통은 종이에 인쇄하여 배달통에 단순부착하거나, 아니면 페인트 도색을 하여 배달통 외부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전부였음.



- 2) 최근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, 광고 문구를 바꿀 수 있는 창(공간)을 두어, 지면 인쇄된 광고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외부에 광고 창을 장착한 배달통도 애용되고 있고, LED 혹은 형광등류를 사용하여 야간 식별력을 강화한 배달통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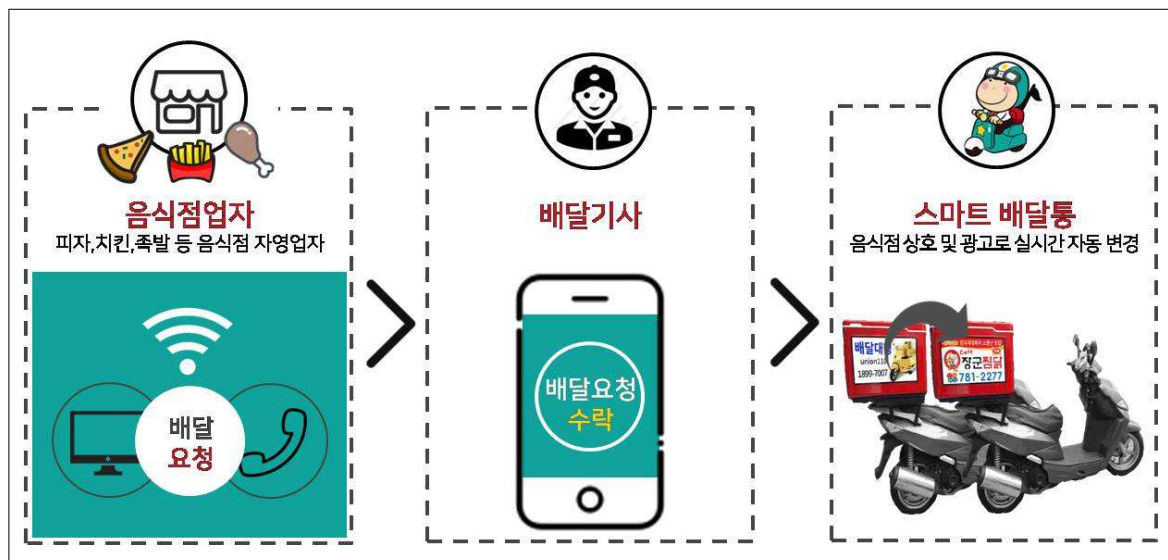
- 3) 하지만 상기 배달통 제품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차원에서 단순히 고정된 상호만을 게시하거나, 야간에 이를 더 잘 보이게 하려고, 혹은 시선집중을 위한 보조역할로 조명을 장착한 것에 지나지 않음 (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수준이 이러함. 이는 해외시장도 마찬가지임).
- 4) 최근 급증하는 피자나 치킨 가게 등 자영업자들이 인력난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애용하고 있는 “배달의 외주” 즉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, 비용만 지출할 뿐 가게 홍보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. 그 이유는 배달대행업체나 퀵서비스 회사 역시 고정된 상호를 게시하여, 자기회사 상호를 광고하고 있기 때문임.



- 5) 이로 인하여, 자영업자들(주문자인 피자, 치킨점등의 가맹점들)이 **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**, 정작 자영업자들 본인 가게의 상호는 고객들에게 잊혀져가는 역반응이 발생하고, 자영업자들은 자기 상호를 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**광고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** 있음(해외 시장도 동일함).

2. '스마트 배달통'의 서비스

- 1) '스마트 배달통'은 기존의 배달대행서비스나 퀵서비스 배달원들이 음식이나 각종 소화물을 배달하기 위하여,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장착하고 다니는 바, 본 아이템은 기존 **배달통의 고유의 기능은 물론이고**, 이에 더하여 배달원들이 음식점이나 회사 등에서 주문을 하고, 이에 관련한 주문(콜)을 스마트폰으로 잡으면, 그 순간 콜을 잡은 배달원의 오토바이 배달통에서, **배달자의 상호가 아닌, 주문자의 상호나 주문자의 광고(무료)로** 변신하는 실시간 수요자 맞춤 Real Time 광고 시스템임.



- 2) **배달 중일** 때는 배달대행을 요청한 주문자의 상호 및 광고를 무료로 송출하고, **배달 중이 아닐** 때는 대기업CF, 백화점 및 대형마트 세일정보, 최신개봉영화 홍보, 건설회사 분양광고 등의 유료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임.

3) 광고수익의 일부는 배달기사에게 재분배함으로써 배달기사의 수익 증대,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.

4) 또한 공개수배, 미아·실종자 찾기, 교통정보 우회도로, 미세먼지 경보 등 범국민적으로 유익한 공공·공익 정보를 무료 송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, 공익정보 전달 메신저로서 배달기사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제고할 것임.

3. '스마트 배달통'의 제품화 용이성

1) 기존 배달통은 FRP 소재의 수작업으로 대량생산이 불가능

- 국내에서 사실상 배달통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D사는 99.9% 이상의 배달통을 100% 수작업으로 FRP 또는 아크릴 소재로 생산하고 있음. 목형에 재질이 되는 유리섬유를 가로세로로 엮여 나가며 본드로 접착하는 형태로, 건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외부 충격과 화재에 약한 점, 사고로 인한 파손 시 재활용이 불가해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음.

2) 당사의 배달통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대량생산 가능

- 당사는 방탄용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이용하여, 견고성을 높이고, 금형 사출을 통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개발할 예정

3) 4년간의 시장조사 결과, 서비스 주요 고객의 니즈(needs) 검증 완료

- 본 기술을 통해 구축된 제품은 배달업종 종사자 78만명, 외식업 종사자 300만명 외에도 대기업 및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니즈(needs)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.
- 지난 4년 동안 자체적으로 시장조사한 결과, 대다수의 음식점업자와 배달기사들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결과, 대다수의 음식점업자와 배달기사들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.